

생활과 윤리

1.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수혜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합의할 것이다.
 을: 분배 정의의 원리는 분배가 진행되는 과정을 명시해야 하며, 결과를 규정하거나 그 과정이 충족시켜야 할 정형적 기준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 ① 갑: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재화를 분배 하였더라도, 그 결과가 언제나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 ② 갑: 부의 획득 과정에서 자연적인 우연성이 개입하였다면 그 결과는 언제나 부정의 하다.
- ③ 을: 부정의한 분배를 교정하는 것 이외에 국가의 역할은 요구되지 않는다.
- ④ 을: 정당화되는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⑤ 갑,을: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완화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조건이 아니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나는 참여자들이 그들의 행위 계획을 합의적으로 조정하는 상호 작용을 의사소통적이라고 부른다. 이때 매번 도달한 합의는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호 주관적 합의에 따라 평가된다. 명시적으로 언어적인 협의 과정의 경우 행위자들은 그 무엇에 대해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들의 언어 행위와 함께 각기 상황에 따라 타당성 주장, 즉 진리 주장, 정당성 주장, 진실성 주장을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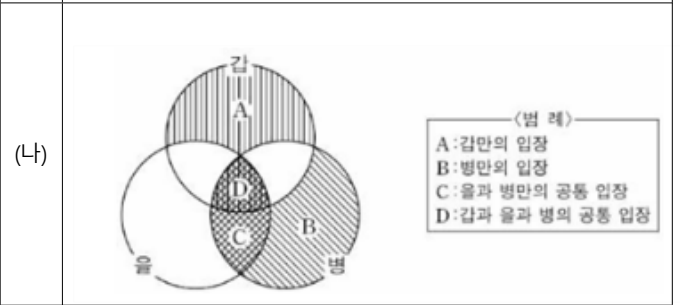
<보기>

- ㄱ. 언어능력이 결여된 주체는 논증적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가?
- ㄴ. 담론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은 규범만이 타당한가?
- ㄷ. 담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해야하는가?
- ㄹ. 담론에서 합의된 내용이 보편적 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닌가?

-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ㄴ,ㄷ ⑤ ㄴ,ㄷ,ㄹ

3. (가)의 갑, 을, 병 사상가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늙은 말이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동물에 관련한 감사의 정은 직접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을: 바람직한 대지의 이용을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 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
 병: 기계는 목표 지향적 활동을 보이지만 독립적 존재로서 고유의 선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지니며, 우주의 다른 어떤 것과도 독립적으로 그들 자체가 목표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다.



<보기>

- ㄱ. A: 식물은 인간의 판단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 ㄴ. B: 이성적 존재 뿐만 아니라 개별 동식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ㄷ. C: 생명체 뿐만 아니라 생명 공동체도 도덕적 의무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 ㄹ. D: 이성적 능력이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

- ① ㄱ,ㄹ ② ㄴ,ㄷ ③ ㄷ,ㄹ
- ④ ㄱ,ㄴ,ㄷ ⑤ ㄱ,ㄴ,ㄹ

생활과 윤리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도를 따르기 때문에 삶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이 달처럼 차다 기울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을: 현자(賢者)는 삶에서 도피하려고 하지 않으며,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누리려고 노력한다.

- ① 갑: 현생에서의 선업이 내세의 삶을 결정한다.
- ② 갑: 생(生)과 사(死)의 구별에서 벗어나 죽음에 마땅히 애도하여야 한다.
- ③ 을: 죽음으로 인해 몸을 구성하던 원자들이 모두 소멸한다.
- ④ 을: 죽음을 통해 비로소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참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 ⑤ 갑과 을: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불멸에 대한 욕구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5. 갑, 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각 개인에게 신께서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지정해주신 초소와 같다. 이 모든 것이 신께서 지워 주신 의무임을 우리가 알고 따를 때 소명(召命)은 신 앞에서 빛날 것이다.

을: 성향상 장인(匠人)인 사람이 우쭐해져서 전사의 부류로 이행하려 들거나, 혹은 전사들 중의 어떤 이들이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속의 결정하며 수호하는 부류로 이행하려 든다면 이들의 참견은 나라에 파멸을 가져다 준다.

<보기>

- ㄱ. 갑: 신이 정해주신 직업의 귀천이 구원의 현세적 징표이다.
- ㄴ. 을: 사유제의 전적인 폐지가 정의로운 사회의 조화를 보장한다.
- ㄷ. :갑,을: 자신이 맡은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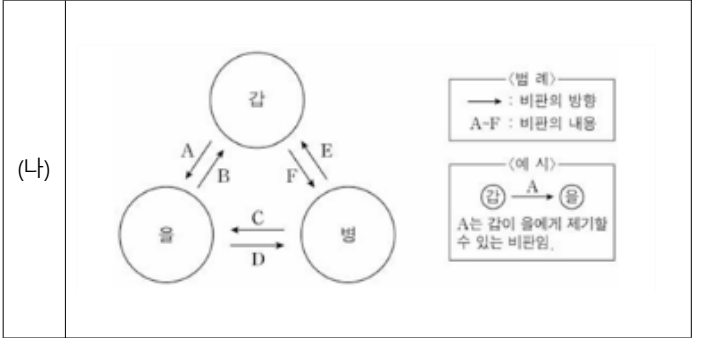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ㄷ ⑤ ㄱ,ㄴ,ㄷ

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사회 계약에 사형은 포함될 수 없다.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사형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권리가 될 수 없다.

을: 사회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자기 보존이 목적이다. 남의 희생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병: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령한 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 ① A: 형벌은 범죄자와 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A,F: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E: 형벌은 오직 범죄자의 생득적 인격을 교화하기 위해 행해져야 함을 간과한다.
- ④ B,D: 사형에 대한 살인자의 동의는 형벌권의 기초가 될 수 있음 간과한다.
- ⑤ D,F: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해 가해지는 수단임을 간과한다.

생활과 윤리

7.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람마다 자신을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는 것이지, 특정한 개인에게 자신을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저마다 개인의 인격과 그가 가진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의 지라는 가장 우월한 지배 아래 둔다.</p> <p>을: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단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결합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 통일 되었을 때 그것을 코먼웰스 라고 부른다.</p>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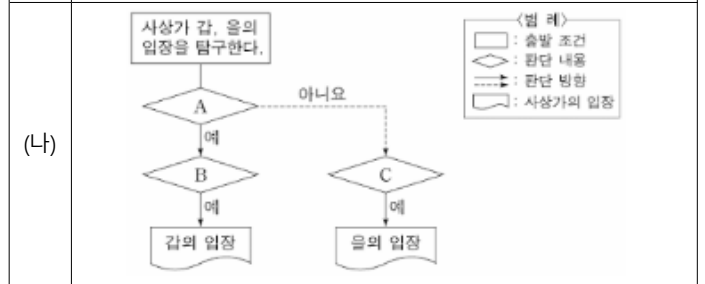
<보기>

- ㄱ. A: 일반의지의 행사에 의한 전쟁상태는 발생할 수 없다.
- ㄴ. B: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없다.
- ㄷ. B: 공동 인격체에 모든 자연권을 양도한 시민은 국가에 저항할 필요가 없다.
- ㄹ. C: 절대 군주는 주권자들의 계약에 따라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8.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정의 원칙을 자기 사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세계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전에 빈곤으로 인해 죽어갈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만 한다.</p> <p>을: 정부가 기아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국민이 굶주리도록 방치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다. 희망컨대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기근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 속에 속한 유력한 정부들에게 효과적인 방향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p>
-----	---



<보기>

- ㄱ. A: 빈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원조의 정당화 조건은 아닌가?
- ㄴ. B: 원조 주체의 손해를 야기하는 원조는 바람직한 원조가 될 수 없는가?
- ㄷ. C: 공격성 없는 사회에 원조 받을 것을 권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 ㄹ. C: 부정의한 법이 제정되는 사회가 원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생활과 윤리

9.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이 원초적 합의 대상이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이다. 정의의 원칙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르고자 한다.

- ① 원초적 합의 당사자들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 방식을 택한다.
- ② 천부적 재능의 분포가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인 사실은 아니다.
- ③ 경제적 불평등의 시정을 위해 큰 재능을 가진 소수자들의 권리가 유보될 수 있다.
- ④ 원초적 계약에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당사자 자신들의 이익에 우선한다.
- ⑤ 기회 균등의 원칙은 임의적인 사실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원칙이다.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그것이 속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현현(顯現)하고 보여주기 때문이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성현(聖顯)이라 한다.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며,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돌, 성스러운 나무는 돌이나 나무로서 숭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현이기 때문에 숭배된다.

- ① 자연이 초월적 존재 그 자체인 것은 아니다.
- ② 종교적 인간이 자연물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성스러움은 세속적인 대상을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는다.
- ④ 비종교적 인간도 일상 생활 속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비종교적인 인간에게 돌이나 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이다.

11.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이며,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호소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도록 할 수 있다.

을: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깊을 수록 그만큼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 ① 갑: 차등의 원칙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 ② 갑: 공유된 정의관에 대한 의도적 위반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 ③ 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민주주의에 대한 존경심을 떨어뜨릴 순 없다.
- ④ 을: 부정의한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 ⑤ 갑,을: 시민 불복종이 부정의한 법의 변혁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12.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 기술이 산출할 행위들의 규모는 너무나 새롭고, 그 대상과 결과가 너무나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전통 윤리의 틀로서는 이 행위들을 더 이상 파악할 수 없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에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 ① 현세대 인간에게 호혜적 의무는 완전히 배제된다.
- ② 인간은 사후 책임이 아니라 사전적 책임을 져야한다.
- ③ 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의 발견이 필요하다.
- ④ 생태학적 명령은 현세대에 부과되는 조건적 명령이다.
- ⑤ 책임을 져야한다는 당위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발생시킨다.

생활과 윤리

13.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사회적 정책의 목적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승인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는 윤리적 문제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실용적 문제를 제기한다. 현명한 지성이 있는 사회라면 위험한 정치적 도구들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성이 강제력을 도덕적 이상의 실현 도구로 삼는다면, 이성은 이를 최고 목적을 위한 봉사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세력에 가장 잘 어울리고 위험성이 가장 적은 형태의 강제력을 선택할 것이다.

- ① 강제적 요소는 사회적 갈등 해소에 필수적이다.
- ② 인간의 이성은 집단 간 힘의 불균형을 추구한다.
- ③ 개인의 도덕적 이상인 정의는 집단에서 여과 과정을 거친다.
- ④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⑤ 사회는 강제력 사용의 목적이 정당한지보다 갈등 해결을 중시해야 한다.

14.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그의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의 평화, 안전 및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 ① 토지 향유만으로도 자발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다.
- ② 명시적인 동의가 포함되어야만 완전한 국가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 ③ 자연법에 위배되는 법의 제정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이다.
- ④ 최고 권력인 입법부는 행정부의 실탁 위반 최종 판단자가 된다.
- ⑤ 정부는 실탁의 수혜자들에게 일방적인 의무만을 저야한다.

15.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기술을 중립적으로 보는 사고는 우리를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만들고,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p> <p>을: 기술은 수단으로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기술은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기술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가이다.</p>
(나)	

- ① A: 기술의 활용을 가치 중립적으로 고려하면 안됨을 간과한다.
- ② A: 인간의 의도가 기술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③ B: 기술 그 자체는 인간 사회에 가치중립적인 수단임을 간과한다.
- ④ B: 기술은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그 자체 발전 논리를 가지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⑤ B: 기술에 내재한 부도덕성도 인간이 통제 가능함을 간과한다.

16.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 세계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선의지는 어떤 목적 달성에 쓸모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유용성이니 무익함이니 하는 것은 선의지가 지닌 가치에 아무것도 증감시킬 수 없다.

- ① 동정심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경우는 없다.
- ② 자연적 경향성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동기가 될 수 있다.
- ③ 이성을 지닌 모든 존재에게는 정언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 ④ 의무감에 일치하는 행위는 언제나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 ⑤ 보편적인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생활과 윤리

17. 갑,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공화 정체인 국가들은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평화 연맹에서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으려 하며, 영구 평화를 위해 세계 시민적 체제로 나아가고자 한다.

을: 정치와 도덕의 영역은 분리되며, 외교 정책은 도덕원리가 아닌 정치적 이해 관계에 기초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들 간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곳으로, 국제법의 지배란 비효율적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보기>

- ㄱ. 갑: 휴전을 약속하는 평화 조약은 영구 평화 실현에 기여한다.
- ㄴ. 갑: 국제 관계에서 주권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 아니다.
- ㄷ. 을: 국제 규범은 국제 사회 분쟁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다.
- ㄹ. 갑,을: 다수의 평화 연맹이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ㄷ ② ㄴ,ㄹ ③ ㄷ,ㄹ
- ④ ㄱ,ㄴ,ㄷ ⑤ ㄱ,ㄴ,ㄹ

18.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접적 폭력은 언어적·신체적인 폭력이고, 구조적 폭력은 정치와 경제에서 일어나는 억압과 착취이다.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정당화 시킬 수 있다. 우리는 모든 폭력이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 ① 구조적 폭력의 이면에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 ② 비의도적 폭력이 의도적 폭력을 정당화 할 수 있다.
- ③ 진정한 평화는 국가 안보 보다 인간 안보 차원의 평화이다.
- ④ 직접적 폭력의 해결만으론 어떠한 평화도 실현할 수 없다.
- ⑤ 직접적 폭력은 간접적 폭력보다 법적인 규제가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다.

19.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죽을 자들은 땅을 구원하는 한에서 거주한다. 땅을 구원하다는 것은 땅을 지배하지 않고, 땅을 복종하게 만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죽을 자들은 하늘을 하늘로서 받아들이는 한에서 거주한다. 죽을 자들은 태양과 달에게는 그것들의 운행 과정을, 별에게는 그것들의 궤도를, 또한 사계절에게는 그것들의 축복과 매정함을 일임하며, 그리고 밤을 낮으로 만들거나 낮을 고달픈 부산함으로 만들지 않는다. 거주함의 근본 특성은 보살핌이다.

- ① 거주란 단순히 객관적 공간에 머무는 것이다.
- ② 건축함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고향이 상실된다.
- ③ 거주함으로써 신적인 것들을 보살펴야 한다.
- ④ 건물의 소유가 곧 거주함의 실현을 보장한다.
- ⑤ 고향을 되찾기 위해 거주 공간을 떠나야 한다.

20.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도로 조직된 산업 사회에서 명성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수단은 여가와 과시 소비이다. 여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과시 소비는 그대로 남아서 극빈층을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계층이 과시 소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류 계층에서는 이 두 가지 수단이 주로 아내와 자녀의 몫이 된다. 아주 지독한 궁핍함이 압박해 오지 않는 한, 마지막 장신구 혹은 금전적 품위를 지켜 주는 마지막 허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① 자본주의 사회 하에 모든 구성원은 과시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다.
- ②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과시 소비의 경제적 동기는 아니다.
- ③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는 것은 부나 권력의 획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 ④ 유한계급의 소비 성향은 극빈층의 소비 성향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 ⑤ 인간의 비교 성향은 자기 보존 본능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이다.

생활과 윤리

<정답>

1. ⑤
2. ③
3. ①
4. ⑤
5. ③
6. ④
7. ①
8. ③
9. ⑤
10. ③
11. ⑤
12. ③
13. ①
14. ④
15. ③
16. ①
17. ②
18. ④
19. ③
20. ③